

현대교회건축에서 표현되는 성막건축의 신학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ological Symbolism on the Tabernacle's Expressed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

오태주* / Oh, Tae-Joo
이상호** / Lee, Sang-Ho

Abstract

The Tabernacle was personally designed by God and was ordered from God to Moses to build it as the first piece of church architecture that accurately showed God's love and will of salvation towards humankind. Tabernacles, through the architecture of tabernacles teaches the Lord being among us, His Holiness and man's sins, and also reflects the path of eternity as well as the good news an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Tabernacle is talking of the Glory of New Jerusalem that is provided Kingdom of Heaven for us at the same time being a completion of a final and ultimate church constructed long predicted through the Bible being already designed by God. The external expression of modern architecture may follow the uniqueness of that age but the special quality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symbolism of church architecture will have to consist the standards of God for He is the first, sincere designer.

키워드 : 건축, 교회건축, 교회, 양식
Keywords : Architecture, Church, Styl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그 시대의 정신적 물리적 기능을 공간이나 형태로서 표현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결정체로서 그 시대에 따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변천되어왔다. 그 중 특히 교회건축은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으로서 고대에서 현대에 걸쳐 인간의 정신세계와 모든 시대의 건축문화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이었다.

건축학적인 의미로의 교회건축의 시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건축'(출25: 8)이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그려주시고 짓게 하신 건축으로 솔로몬성전에 이르며(대상28:19) 신약시대에서의 교회건축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약 300년이 지난 뒤부터 이다. 예수그리스도 사후 300년간은 로마제국의 박해로 교회 건축은 있을 수 없었고 지하무덤인 카타콤(catacomb)만이 존재했다. 서기 313년에 이르러 로마황제로부터 기독교신앙이

허가됨으로써 비로써 지상에 인간이 설계한 교회건축이 설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약 1600년간은 기독교회의 황금시대로 이루어졌으니 서양건축사는 바로 교회 건축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존하는 유럽의 고건축은 대부분 교회건축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건축의 모습들이 세속의 잡다한 건축보다 별로 나올 것이 없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충족시키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한 건축'으로서의 교회당은 미처 생각지 못함이며 또한 교회 건축이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대내외적인 영향과 상징성을 간과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교회와 건축가 사이에 상호 깊은 이해와 신뢰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교회들은 건축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이해할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고, 건축가들은 평신도로서 신학적 교회론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교회건축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그 활동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건축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건축의 기능 위주의 개념은 교회건축을 하나의 교회본부화 된 건물로 전락시키고 교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상징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희석시키고 말았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따라서 현대교회 건축의 외형적 표현은 건축적 시대성에 따른 표현성이 그 시대마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외적, 내적 의미의 교회건축이 갖는 상징성과 표현특성은 바로 교회건축의 최초 설계자인 하나님 중심의 상징성과 표현적 특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성막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 상징성 즉, 외적, 내적 의미의 교회건축이 갖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상징성과 표현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현대교회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 하시고 문향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도 자세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작품인 성막의 상징과 표현특성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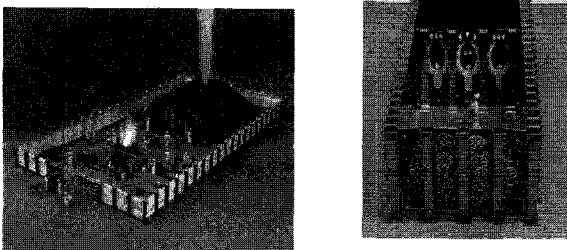
먼저 제1장에서는 교회건축의 연구목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구약시대의 교회건축인 성막, 성전, 회당에 대해서 고찰하며 제3장에서 성막의 건축적의미를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성막건축의 구성과 신학적의미를 조사한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성막건축의 상징성과 신학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하며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연구한 성막건축의 신학적 상징성들이 현대교회건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며 끝으로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교회건축에 있어서 외적, 내적 의미의 교회건축이 갖는 성막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상징성과 표현특성의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 구약시대의 교회건축

2.1.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지상 최초의 교회건축이다.¹⁾ 따라서 성막건축의 양식은 모세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 하시고 문향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도 자세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출36:1~39:43)

성막의 건축양식은 시내산에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으로 아



<그림 1> 성막건축의 외형과 지성소의 기둥

무것도 첨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었다.²⁾ 성막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은 금, 은, 놋, 세마포, 염소털, 수양피, 해달가죽, 조각목, 기름과 향료 그리고 보석 등으로 합치면 약1,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의 성막학 교수인 로이 리 데윗은 계산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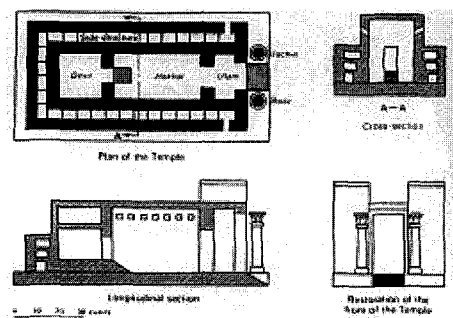
이 성막건축은 완공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하나님은 성막이 완공되자 시내산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성막에 머물기 위해서 강림하셨다.(출40:34~35) ⁴⁾

2.2. 성전(솔로몬 성전)

솔로몬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그려주시고 짓게 하신 건축으로 솔로몬성전은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성막건축을 포함하고 있다. 성막건축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그려주셨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놀랄만하다.(대상28:19) ⁵⁾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그려서 주셨다. 하나님은 놀라운 설계사이다.⁶⁾

성전건축은 솔로몬왕이 즉위한지 4년 후에 시작하고 7년이 걸렸다. 솔로몬성전은 세계의 연속 건물로 건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관, 성소, 지성소이다. 솔로몬성전의 신학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으로서 성전예배는 성막에서의 예배와는 달리 악기와 성악을 통하여 현대교회에서의 예배와 같이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건물의 규모는 성전은 길이가 약 27m, 폭이 9m, 그리고 높이가 12m정도 된다. 솔로몬의 성전은 1)현관은 폭이 9m, 높이가 3m로 되어있었고, 양편에 각각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2)성소는 길이가 18m, 폭이 9m로 되어 있고, 3)지성소는 길이 9m, 폭이 9m, 그리고 높이가 9m로 되어 있다. 지성소 안은 어렵게 보존되었으며, 다른 부분과는 휘장으로 구분되었다.



설계도 참고성구 : 역대하 1장-7장, 열왕기하 6장

<그림 2> 솔로몬성전의 설계도

2)허정욱, 교회건축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교회사적 고찰, 석논,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6, p.8.

3)강문호,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한국가능성개발원, 2001, p.45.

4)허정욱, op. cit., p.8.

5)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대상28:19)

6)강문호, op. cit., p.53.

1)강문호, 성전, 한국가능성개발원, 2001, p.46.

2.3. 회당

회당은 유대교의 공적인 기도·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집회'를 뜻하는 그리스어 <synagōgē>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BC 587년 유대왕국이 멸망한 뒤인 바빌론유수시대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신전 대신 그들의 공적인 기도장소로서 발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BC 515년 예루살렘신전이 재건되고 그들의 종교적 생활 규범인 율법서가 완성되면서부터 이를 함께 읽고 배우는 기관이 되었다.



<그림 3>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

3. 성막의 건축적 의미

3.1. 성막건축의 의미와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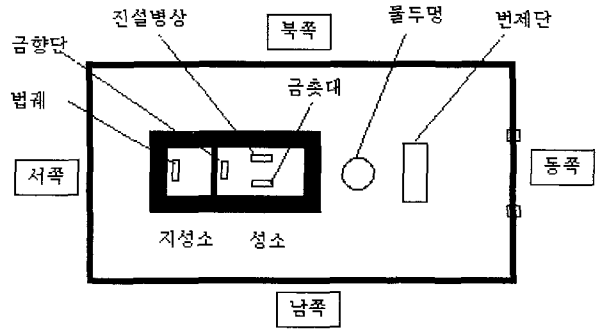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시작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건물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히 8:2)(히9:9~11)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랑을 버리지 않고 공의를 버리지 않고 행하신 자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표시가 성막인 것이다.⁷⁾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높이며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요, 성막이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는 곳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요. 구약의 성막이었다. 율법을 없애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입게 되었다는데 있어서 성막의 의미와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2. 성막건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는 성막 연구와 일치한다.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으나 430년 만에 출애굽(출9:1)하여 나올 때에는 300만 명 이상이 되었다.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민족이 되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는 줄도 모르고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야 비로서 큰 민족이 되었다

는 것을 깨달았으며(창15:13~14)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짓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건축 이었다.⁸⁾

따라서 이스라엘 독립과 동시에 탄생된 것이 성막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기 위하여 먼저 주신 것이 성막이었다.(출39:43)



남·북 : 100큐빗(45M)×동·서 : 50큐빗(22.5M)

<그림 4> 성막건축의 평면도

3.3. 성막건축의 재료

성막의 재료는 크게 나누어 일곱 가지이다.

1. 금속, 2. 직물 3. 가죽, 4. 목재, 5. 기름 6. 향료, 7. 보석 이며 성경에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양을 정확하게 말하여 주고 있다.(출35:49)(출38: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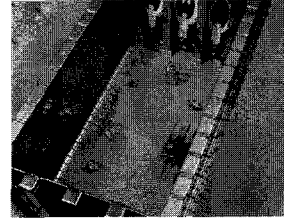
<표 1> 성막의 건축에 사용된 재료

재료	사용부분	사용목적	성경적 근거
금속	· 금: 성막에 쓰이는 모든 조각 목에 씌워서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금속 · 은: 기둥, 널판받침, 기둥고리, 기둥가름대, 기둥머리 · 놋: 60개의 돌기둥, 변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의 문	· 성막건축에 사용된 금속은 금과 은과 놋으로 크게 세 가지이다. 이 금속들은 나무위에 씌우기에 아주 유연하고 좋은 금속이다.	출15:3 출35:5,22 민2:32
직물	· 뜰의 장, 성소문, 지성소문, 덮개 중에 두 잎장, 제사장 옷	·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마포 짜는 기술이 탁월했으며 뜰의 장과 제사장 옷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세마포가 사용됨	출25:4 출35:6, 23 레16:23,32
가죽	· 막의 덮개와 웃덮개	· 성막의 덮개는 해달가죽, 수양의 가죽, 염소털 양장,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짠 잎장으로 네겹의 다른재료임.	출35:4, 5 출36:8, 28 출26:14
목재	· 성막을 만든 목재는 오직 조각목임; 조각목은 단단하여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놋으로 싸서 사용함.	· 기름과 향료를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함.	출25:6 출35:8, 28 출25:6
기름	· 성막과 증거 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변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름.	· 기름과 향료를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기위해 기름을 사용함.	출25:6 출35:8, 28 출25:6
향료	· 향단	· 분향하는데 사용 ·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됨.	출25:6 출35:8, 28 출30:34-38
보석	· 성막에서 대제사장복에 달기 위하여 사용	· 12가지 보석이 사용됨: 1)홍보석 2)황옥 3)녹주옥 4)석류석 5)남보석 6)홍마노 7)호박 8)백마노 9)지수정 10)녹보석 11)호마노 12)벽옥	출25:7 출35:9, 28 출39:10-13 출28:15-21

7)Ibid., pp.19~20.

8)Ibid., p.22.

위의 <표 1>과 같이 성막 건축에는 다양한 재료, 값비싼 물건들이 사용되었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성막건축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애굽으로부터 그것들을 구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운반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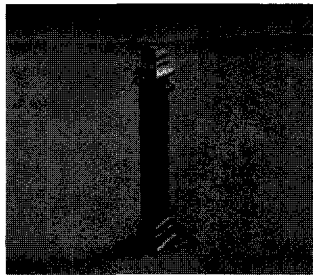
<그림 6> 성소의 내부(촛대, 떡상, 분향단)

4. 성막건축의 구성요소

성막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제의장소를 말한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5장~31장은 성막 제조의 준비에 관하여, 32장~40장은 성막 제조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계시 이후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막은 '거처'를 의미하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삼상3:3)이란 뜻으로서 '여호와와의 전'으로 불려지기도 하며(출34:26) 1)성막 뜰과 2)성소와 3)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4.1. 뜰

안마당 혹은 성스러운 곳이라고 불리며 성막 뜰은 (출27:9~19)(출38:9~20) 성막 안에서 가장 큰 영역으로 가로가 100큐빗이었고 세로가 50큐빗이었다. 1큐빗을 50센티미터로 볼 때 약378평 규모이다. 성막의 둘레는 60개의 기둥이 있었으며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고 가름대와 윗부분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각각이 기둥에는 휘장을 고정시켜주는 가느다란 끈이 있었다. 성막 뜰은 성막문(출27:16)(출38:18)과 번제단(출27:1~8)(출38:1~7)과 물두멍(출30:17~21)(출38: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성막 뜰(좌)과 성막기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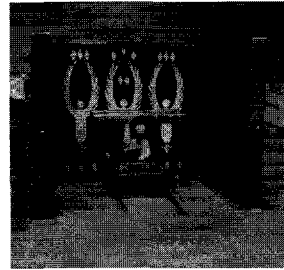
4.2. 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48개의 널판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4개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촛대(등대)와 떡상이 배치되어 있다. 견고 하면서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른 다 할지라도 해체하여 이동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성막의 이동성과 견고성은 가장 독창적이며 뛰어난 설계로 되어 있다.⁹⁾

9)Ibid., p.90.

4.3. 지성소

지성소는 궤와 속죄소가 합하여진 법궤가 있는 곳으로 법궤는 금으로 싸여진 조각목으로 되어있으며 궤 위에는 금덩어리 뚜껑인 속죄소로 덮여있다. 속죄소 양 끝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가 서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도록 만들었으며 약 400억의 금이 소요되었다고 추측된다.(출25:10~22)¹⁰⁾



<그림 7> 지성소의 내부와 법궤

5. 성막건축의 상징성과 신학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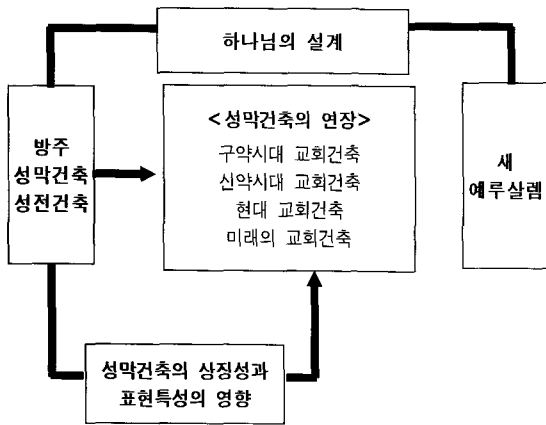
5.1.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설계

성막은 BC 1445년에 세워져 BC 959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무려 48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성소이며 교회 건축이다.¹¹⁾ 따라서 과거의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현대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교회건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의 연장이며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설계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어질 새 예루살렘¹²⁾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계 21:18~22)

10)Ibid., p.107.

11)Ibid., p.16.

12)새 예루살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친히 건설되어질 완전건축으로 건축의 개요는 1)높은성곽, 2)12개의 문(동서남북 각각3개의 문), 3)성곽에 12개의 기초석으로 구성되어있다. (계21:12~14) 새 예루살렘의 형태와 규모는 네모반듯한 정방형의 형태이며 폭과 길이와 높이가 같은 형태로 각각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Stadion)(약 2,130KM)이며 성곽의 길이는 144큐빗(Cubit)(약74.88M)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12수는 하나님의 만수이고 1,000은 많은 수를 상징하며 144는 12x12로 이루어진 숫자로서 역시 하나님의 만수를 뜻하므로 실제로는 인간의 척도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성 전부가 성전이며 동시에 교회건축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그리스도가 계시므로 더 이상의 다른 성전건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계21:22)



<그림 8> 성막의 상징성에 대한 교회건축의 영향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된 새 예루살렘(정금성)

5.2. 성막건축의 건축적 의미와 신학적 상징

성막건축의 건축적 의미와 신학적 상징은 다음과 같다.

- 1) 성막건축은 '유일신론 사상'을 상징하며 후대의 성전과 교회건축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 건립되었다.
- 2) 성막건축의 상징은 신정정치(神正政治)의 기초를 두고 있다.
- 3) 성막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건축이다.
- 4) 성막건축은 이동성과 유동성이 많은 현대사회에 중요한 상징이다.
- 5) 성막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성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줌에 있는 것이다.¹³⁾

5.3. 성막건축의 건축적 구현과 신학적 상징성 분석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출25:9)하신 지상 최초의 건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위한 건축물이다.

성막건축은 그 설계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으며 천국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정금성)의 영광을 말해준다.(출25:8)

성막의 출현은 예수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가는 중요한 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표 2>는 성막건축의 각 요소별 성경적 예표¹⁴⁾에 의한 신학적 상징성과 현대교회건축의 건축적 표현에서 구현되는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성막건축의 각 요소별 성경적 예표에 의한 신학적 상징성과 현대교회건축의 건축적 구현

성막의 세부분	성막의 구성요소	이미지	성경적 예표	신학적 상징성	현대교회건축의 건축적 구현
1. 성소들 (지상을 상징)	성막문		• 복음	• 교회와 구원 (엡1:23) (마7:13-14)	• 교회의 문(현관부)
	번제단		• 갈보리 언덕	•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 (사53:1-12)	• 교회의 설교단
	물두멍		• 예수님의 죄 없음	• 죄의 씻음과 성도 (고후5:17)	• 회중석
2. 성소 (천국을 상징)	덮개 널판		• 하나님께로 향함	•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신32:10)	• 교회지붕
	기둥과 휘장		• 하나님의 권위와 얼굴	• 하나님께 의지함 (시84:12) • 하나님과 화해함 (마27:51)	• 교회의 기둥 및 창문
	일곱 촛대 (금촛대)		• 거룩한 영을 전하는 직분	• 하나님의 완전성 (마5:48) •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 (마24:14)	• 교회 내부 강대후면
	진설병상(떡상)		•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 성도의 축복 (마5:2-11)	• 강대상
	분향단 (금향단)		• 예수님의 증보	• 청결과 순결과 찬양 (딤후5:22) (신5:8) (대하23:18)	• 성가대석
3. 지성소 (은혜의 보좌)	법궤		• 심판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임재 (출40:34-5) • 성경과 복음 (요1:1)	• 십자가 밑 제단
	성소위 구름기둥과 불기둥		•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	• 예수그리스도 (출40:38) (요3:16)	• 십자가 탑 (종탑)

13) 허정욱, op. cit., pp.9~10.

14) 강문호, op. cit.,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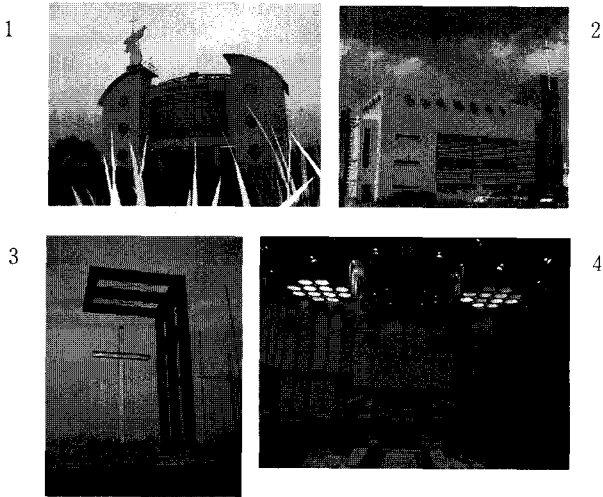
6. 현대교회건축에서 나타난 성막건축의 신학적 상징성

6.1. 현대교회의 표현적 특성

현대교회는 예배 적 기능과 함께 지역 사회로 향한 세속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예배실외에 공연, 회의, 강연, 교육, 축제, 전람회 등 세속 활동을 위한 건물들을 다양하게 지어서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현대교회는 도시의 치유자로서 봉사(draconia)적, 권교(koinonia)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속 활동을 교회에 끌어들이 예배와 일상생활을 일치시키는 교회본부형의 교회건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개신교에서도 예배 운동과 함께 활발해 졌다. 그리하여 현대교회는 교회의 내적 상징(살아있는 공동체 그 자체)이 교회의 외적 상징보다 우선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깨고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서 다양한 기능성이 기념성보다 더 중요시되게 되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현대교회에 있어서 기능위주의 개념은 교회건축을 하나의 교회본부화 된 건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교회건축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신학적 상징성이라는 전통적 개념보다는 세속화에 가까운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집'으로서의 기능적 개념의 건물로서의 교회건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1. 십자가 탑이 한반도 지도위에 놓인 교회
2. 교회건축으로서의 상징이 거의 사라져버린 교회
3. 손의 형상이 십자가를 싸고 있는 추상적 상징의 십자가 탑
4. 마치 우주선의 천정을 재현한 듯한 교회의 내부천정

<그림 9> 주관적인 미적가치표현과 무질서한 모방과 무분별하게 추상화된 교회건축의 사례

6.2. 현대교회건축에 나타난 성막의 상징성 분석 및 적용방안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창조된 교회건축으로서의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회당 그리고 신약시대의 카타콤으로부터 중세 고딕과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이후를 거쳐 현대교회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상징성은 최초 교회건축인 성막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미지와 상징적 특징들로 계승 발전되어져 왔다. 최근 일부 현대교회건축의 양식파괴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기본구조와 신학적 상징성은 여전히 현대교회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대교회건축에서 구현된 성막건축의 영향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표현적 특성과 상징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현대교회건축의 외부적 표현특성과 성막건축의 상징성 비교

구분	각 부분	이미지	성막건축의 상징
교회건축의 외부	외관		• 기둥과 휘장
	입구		• 성막문
	십자가 탑 (종탑)		• 성소 위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붕		• 덮개 널판
	창문		• 기둥과 휘장
교회건축의 내부	설교단 전면부		• 일곱춧대 (금춧대)
	천정		• 성소와 지성소
	성가대석		• 분향단 (금향단)

15)Ibid, p.31.

<표 3>의 현대교회건축에서 구현된 상징성 비교의 결과 성막의 상징과 표현특성에 대한 현대교회건축에서의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외관의 형태는 성막건축에서의 기둥과 휘장의 형태인 박공형태의 지붕에 상징적인 기둥을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교회의 입구는 일반사무소나 상가건물에서의 강화도어(Tempered Glass Door)가 주로 사용되는바 성막의 문을 상징화하여 우아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십자가 탑의 경우 지붕위에 높게 설치되는 경우 보다는 항상 성소위에 탑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지상에 내려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로 땅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바람직하다.

4)창문의 형태는 벽면과의 비례를 고려하되 성막의 기둥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설교단과 전면부는 개신교의 경우 교파에 따라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경우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교회의 내부 천정은 성막건축에서 '하나님께서 향함' <표 2>이라는 이미지의 지붕의 상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교회건축에 있어서 이 외의 각 부분의 상징성의 적용은 세부적인 성막건축의 문항들과 성경적 기록에 의한 신학적 상징성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7. 결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출25:9)하셔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지상 최초의 교회건축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건축물이다. 성막건축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성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으며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을 의미한다.(사53:6~10)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설계되어 성경을 통해 예언된 장차지어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교회건축의 완성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인 새 예루살렘(정금성)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계21:9~10)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성막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 상징성 즉, 외적, 내적 의미의 교회건축이 갖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상징성과 표현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현대교회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 하시고 문항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도 자세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작품인 성막의 상징과 표현특성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성막건축은 '유일신론 사상'을 상징하며 후대의 성전과 교회건축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 건립되었다. 이에 비하여 일부의 현대교회건축은 작가의 주관적인 미적가치표현과 무질서한 모방과 무분별한 추상화로 신학적 교회론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려운 해석과 오해된 느낌과 비경제적인 교회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최초의 교회건축을 현대교회건축의 표준으로 삼아 성막의 신학적 상징성과 표현적 특성을 적용하기위한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성막의 지붕을 상징적으로 적용한 지붕의 현대적 형상화이다. 교회건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지붕이다. 처마를 잃어버린 오늘날 수많은 건축물들에 비해 성막건축에서 도입된 성소의 지붕형태와 상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상징의 적용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현대 교회건축의 외벽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이고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재료의 적용을 지양하고 성막에서 적용된 자연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성막의 상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울러 도시와 농촌 등의 지형과 풍토에 맞게 적용된 유기적인 교회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종탑의 경우 고딕교회건축의 상징들을 어설픈게 차용하거나 높은 형상만을 고수하려는 경우 자칫 교회건물이 외부의 벽과 창문의 비례가 맞지 않는 불합리성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막의 비례와 성경적 상징 언어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로, 건물 꼭대기에 높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경우 하늘로 치솟는 고딕성당의 화려한 십자가보다는 성도들 또는 대중들과 함께 거하는 십자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성막을 통하여 지상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몸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에 미루어 가급적 지붕이 아닌 우리의 곁에서 땅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존재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직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한 상징성보다 찬란한 상업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종교부지에 지어진 대형교회건축의 경우 교회건물 아래의 몇 개 층을 상가 및 임대목적의 층으로 구성하고 맨 상층을 교회 층으로 건축하여 마치 대형의 교상복합형 교회건축이 지어지는 추세를 보며 과연 오늘날의 물질적, 양적인 교회건축의 부흥이 교회당의 화려함과 눈에 잘 띄는 십자가 탑을 세우기에 급급한 현대를 살면서 인간화되어진 규모와 소박한 상징성으로 친히 성막건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이 현대교회건축에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톰슨성경, 기독교혜사
2. 강성훈, 교회유형, 음향기술산업연구소, 2005
3. 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1
4. 장문호, 성진, 한국가능성개발원, 2001
5. 장문호,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한국가능성개발원, 2002
6. 비난트클라센, 서양건축사, 대학출판사, 1990
7.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2001
8. 박홍, 아키와 테리어, 기문당, 1999
9. 이병규, 요한계시록, 영광출판사, 1978
10. 이호진, 한국의 교회건축, 에이앤씨(산업도서출판공사),1996
11. 이광로 외 14인, 건축학개론, 문운당, 1994
12. 오인욱, 실내계획론, 기문당, 1992
13.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도서출판 발언, 2000
14. 정영철, 서양건축사, 기문당, 2004
15. 김근식, 교회건축의 의장적 상징성에 대한 이용자 인지에 관한 연구, 박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6. 오태주, 교회건축양식의 변천과 예배공간에 관한 연구, 석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1994
17. 임광성, 한국 현대개신교 교회건축의 예배공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박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18. 조경수,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박논,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9
19. 허정욱, 교회건축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교회사적 고찰, 석논,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6
20. 홍춘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 박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90
21. Michael J. Croshie, Architecture For The Gods,
22. Michael E. Doyle, Color Drawing, NY:John Wiley & Son's Inc., 1999
23. Moira Huntly, The Artist's Drawing Book, ABMTypographics Ltd., 1994
24. Ramsey/Sleeper, ARCHITECTURAL GRAPHICSTANDARDS, NY:John Wiley & Son's Inc., 1988
25. S.C.Reznikoff, INTERIOR GRAPHIC AND DESIGNSTANDARDS, London:The Architectural Press Ltd., 1986
26. Charles Boyce,The Wordsworth dictionary of Furniture, NY:Roundtable Press Inc.,1985

<접수 : 2005. 10. 31>